



총회 사무국

J. 허버트 벨슨 목사

총회 정서기

2020년 2월 10일

대통령 각하

150만 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인 미국장로교의 최고 교회직으로서 미국의 이민 정책에 의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재회시키는 일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을 포함한 추가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영과 환대에 바탕을 둔 국가로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제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족 분리는 중단해야 하는 잔인하고 지나친 정책입니다. 가족들은 반드시 재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기독교 달력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온전하신 거룩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나뉘음을 이해하시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육신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부나 정치적 지위가 있는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의 겸손하고 충실한 가정에 합류하십니다. 예수님은 억압적인 로마 국가의 지배를 받는 가족에게 오셨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량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가족은 난민으로 이집트에 입국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안전, 보호, 안정을 찾기 위해 국경까지 오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민국 관리들에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가족 분리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토안보부가 이산가족과 어린이들의 상봉을 확인하고 돕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차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가족 분리를 시행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DHS가 국경에서의 자로 재는듯한 이민 보호 프로토콜의 사용을 중단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이전 단계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DHS가 망명 희망자들의 적절한 신원 확인과 치료를 돕기 위해 자격 있는 세관 및 국경 순찰 요원의 훈련 및 활동을 증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 보호로 이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구금에 대한 대안들의 사용을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가로질러 약속된 땅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렸을 때, 이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창조주는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고 어떤 국경도 멈출 수 없습니다. 자비롭고 강력한 창조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여, 여러분은 급진적인 사랑과 자비에 바탕을 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 안에서,



J. 허버트 넬슨 목사  
총회 정서기  
미국장로교

참조: 국회의원들, 미국 법무장관, William Barr, 그리고 DHS 장관 대행, Chad Wolf.